

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평선고등학교 여고기숙사 사생총회 회의록

- 일시 : 2022년 03월 29일 (화) 21:00 ~ 22:50

- 장소 : 지평선고등학교 법당강당

• 개회 및 인원파악

• 기숙사 생활안전 교육

1. 기숙사 화재안전 교육

- 피난안내도 안내 (연화관)
- 기숙사 화재안전 교육 영상 시청

• 회칙 개정 및 제정 안내

1.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 회칙 개정 안내

2. 여학생 기숙사 생활수칙 개정 안내

3. 기숙사선거관리규정 제정 안내

• 논의사항

1. 대청소 요일 변경 논의

(학생자치회와 기숙사자치회의 아침 식기 논의 과정 중, 일부 변동된 사항이 사생운영위원회에게 안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본 사생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.)

- 목요대청소 : 일요일 청소 피곤, 빠지는 사람 많음, 일요일 여유 등
- 일요대청소 : 목요일 청소 피곤 등

- 4안 대라면 아침식기는 3학년이 하고 있음. 식기 봉사시간
- 2주 전부터 식기 표 짜고, 봉사시간도 넣는 거라 식기 계획 쪽에서 번거로움.
- 2안과 3안 차이?
- 분리수거로 놓자.
- : 안된 이유?
- : 당시 상황
- 안 오는 사람 때문에 목, 일요일 2회의 대청소를 진행하면 중학교 측에서 시끄럽지 않을까?
- : 중학교에서 목요일 대청소를 알고 있고, 일요일은 어차피 중학교에서도 대청소하므로 괜찮음.
- 분리수거, 간식당번까지 포함.
- 일주일에 두 번. 빠지는 사람에 대해 식기를 넣거나 아침을 넣는다고 청소를 빠지는 것으로 인해 청소가 힘들어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.
- 화, 목, 일 등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.
- : 덧붙여서 두 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 번 다 안 오는 사람이 많다.
- 학생생활부에서 이미 식기 추가에 대한 불편함을 말했고, 전에 합의된 게 아니니 지양하자.
- : 가능하면 기숙사 내에서 해결하자.
- 목요일 대청소 못하는 사람 (목요일 저녁에 없는 사람이므로) 금요일 아침에 진행되는 분리수거도 못한다. (목요일) 대청소 못하는 사람을 미리 조사하자.
- 대청소에 정기적으로 빠지는 학생들을 방청소 등 개인 청소구역으로 놓자.

→ 안이 많이 나와서 사생회에서 논의하여 정리 후 표결할 예정.

2. 화양연화 (영화제) 실시 관련 수요조사

3. 고등학교 3학년 절대 취침 시간 조정 (안) 공유

•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

- 기숙사 규칙 개정과정 어떻게 되나요?

: 사생장단 내 논의 후 사생대의원, 인성부, 사감선생님과 공유해서 결정.

- 간식시간에 머리말리는 거 되는 걸로 알았는데 왜 안 되는지?

- 개인 사사시간 취침 허락했는데 좌식 되었다고 허리 안아프니 안 된다?

: 그런 말 한적 없음.

→ 허용

- 의자, 캐비닛에 수건, 옷 거는 거 허락해주세요.

: 알짬 시간에 결정했었다.

: 단체로 코로나 걸렸을 때 결정되어 많이 모르는 사실이다. 다시 의결해봤으면.

: 의자에 널지 못해서 어디 처박아두면 더 곰팡이 생김.

→ 찬성으로 표결

- 회칙 개정 시 구성원들 동의 받으면 좋겠다.

- 샤워실 옷 담는 바구니 갖고 들어가면 바구니가 습기나 물기로 젖어서 다음에 옷이 젖는다.

→ '바구니 개수 나눠서 갖고 들어갈 거 지정해두기' 로 표결

- 벌청소가 아니니 꼭 필요한 장소 외에는 아침청소 구역을 줄이거나 시간을 앞당기자.

: 원래 벌청을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있는 거고, 벌로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건 바람직한 것.

- 생식 가능한지

: 인성안전교육부와 바로 논의 후 알려드리겠습니다.

- 여고기숙사 전체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하자.

• 폐회